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9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심판대 앞에 선 의인과 악인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0번 ‘어두움을 밝히소서’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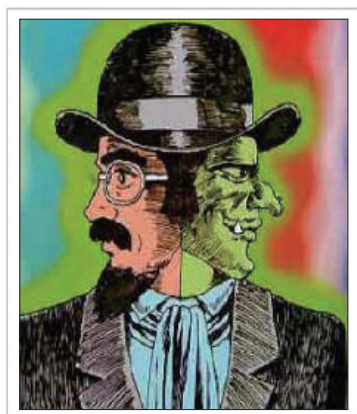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의 사진을 보고 느낀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지해서 4장 20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기들의 죄가 날날이 해아려질 때에 그들이 떨며 다가오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면전에서 고발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은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자들 앞에, 자기의 노고를 경멸한 자들 앞에 나설 것이다. 악인들은 의인을 보고 극심한 공포로 떨며 그 뜻밖의 구원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들은 후회하고 마음이 괴로워 신음하며 저회끼리 말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한때 웃음거리로, 놀림감으로 삼던 자가 아닌가?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였구나! 우리는 그의 삶을 미친 짓이라고, 그의 죽음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 그런데 어떻게 하여 저자가 하느님의 아들 가운데 들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 제 뉘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벗어났고 정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았으며 해가 우리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불법과 파멸의 엉성퀴에 말려든 채 인적 없는 광야를 걸어가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진행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여 기뻐던 일이 있거나, 반대로 사람들과로부터 어리석은 자 취급을 당하거나 스스로 바보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33세에 최초로 다이내마이트를 발명하여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노벨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인즉슨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하니까 그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 사망하다'하고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노벨한테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이내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라고 되어있는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노벨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이내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노벨상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으며, 어떻게 평가될 것 같습니까? 또 주님 앞에 섰을때 여러분을 오른쪽과 왼쪽, 알곡과 컙정이, 양과 염소 중 어느 쪽으로 분류 심판하실까요?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0번 '어두움을 밝히소서' 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신부님이 목에 거는 영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교, 신부, 부제들이 미사 제의를 입기 전에 목에 거는 영대는 미사 외에도 고해성사나 다른 축성식 혹은 강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옛날 유대인들이 망토를 입을 때 휴대했던 손수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 손수건으로 땀을 닦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귀족들의 화려한 허리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으며, 교회에서 ‘영대’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한 것은 6세기부터입니다. 이 영대는 첫째로, 어떤 권한을 나타내며 특히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의 권한과 그 품위를 뜻합니다. 사제들이 고백소에서 두르는 영대는 사제의 사죄권을 상징하는 구원의 상징이며 이외에 영세 때나 기타 교회 의식 때 영대는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영대는 성직자들을 상징하는데 이는 사제로서, 지도자로서의 영적 덕행을 상징하면서 대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직의 거룩함을 뜻합니다.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작은 모임

- 신월동성당 은아 2반 -

2005년 사과공동성당 출범과 더불어 신월동 성당은 세 번째로 부임하신 강병모 신부님께서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씀으로 사목에 투신하고 계십니다.



은아 구역은 총 75세대이고 그 중 오늘 소개할 2반은 22세대 대략 47명이지만, 맞벌이하는 가구가 많아 소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세대는 8세대 정도입니다.

저희 2반 공동체의 지향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1코린 11,31-33)’ 입니다. 이 말씀처럼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소공동체 모임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나누기 시간에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웃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늘 감사드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행복한 일에는 다 같이 기뻐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반원들 모두 구역장, 반장, 선교부장, 연령회, 레지오, 은총대학 등 모든 본당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우끼리 서로를 아끼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언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모습에, 전입한 교우나 새롭게 입교한 이들도 어렵지 않게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흡수될 수 있었고, 자연스레 본당 활동의 적극적인 참가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소공동체 모임에서 저희 반원들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달 한번, 모임이지만 여기서 저희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본당 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우정을 나누면서 조금씩 발전하는 은아 2반 소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카 2,9)’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 안에서 더욱 행복해 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 신월성당 은아 2반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